

# 1. 제1차 임원, 이사, 중앙 합동회의 및 캔터키 지역 세미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이오영)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캔터키 루이빌에서 제1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이하 총연) 회장단 출범식 및 제1차 임원·이사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역에서 80여명의 총연 임원·이사들이 참석, 제19대 총연 사업계획 및 예산안(총예산 \$743,000)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일반회비(정회원/2년 회장 임기 기준) \$200로 정하고, 임원·이사 특별회비(분담금)를 전 회기 년도 (제18대)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한편, 총 예산액 중 \$300,000을 정부에 보조 지원요

청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미주한인사회를 하나로 묶는 Net-Work구축을 비롯하여 대미 정치력 강화를 위한 내년 봄 정치포럼을 개최키로 했으며, 총회에서 위촉한 회칙개정은 김기홍 회칙 심의 위원장의 보고로 심의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각 분과 위원장의 분과 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제반 중요 현안 문제를 협의 통과 시켰다.



회의장의 모습

금번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8일 저녁에는 캔터키 주의 명물인 목장(Castle Rock Farm)을 견학하고, 목장 주인의 안내로 경마장에서 크게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경마들을 직접 대하고 목장 주인 저택 가든에서 이오영 회장 주최 환영리셉션이 있었는데, 특히 루이빌 여성합창단의 자원 봉사 공연은 리셉션의 분위기를 한결 고조시켰다.

둘째날 29일 오전 9시부터 박현우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먼저 David L. Armstrong 루이빌 시장으로부터 이 날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의 날"로 선포하는 선포식이 있었으며, 이어서 이오영 회장은 인사에서 총연이 220만 한인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한인회와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며, 9·11 테러 사태 이후 어려운 항공 여건

가운데 캔터키까지 찾아오신 노고를 치하하고, 여러분과 함께 헤쳐갈 총연호를 출범시켰다고 힘주어 말하며, 임원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향해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준성 이사장의 인사와 김 마리 캔터키아나 회장의 환영사가 있는 다음, 제19대 임원·이사·간부들의 위촉장 수여 및 인사 소개가 있었다.

이 날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에 앞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박선근 상임고문(백악관 직속 아태계 국가 정책 자문위원)의 "한인 사회 성공의 지름길"이란 주제와 박동진 미시간 대학 교수(1.5세)의 "이민 1세대가 모르는 우리들의 2세"라 주제의 강연이 각각 있었으며,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가든 그로브 부시장을 역임한 정호영 총연 전 수석 부회장이 "미주 총연의 새롭고 창조적인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특별히 초대 받은 세 연사들의 강연은 하나같이 현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 한인들 모두가 실천해야 될 사항으로 참석자 모두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세미나 분위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진지한 분위기였다.

이 날 오후 6시 30분부터 개최된 양성철 대사 주미 대사 주최 저녁 만찬에서는 9·11 테러 참사로 인한 긴급 사항 대비로 양성철 주미 대사가 참석하지 못하고 축사를 보내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축사를 보내와 미주 총연 19대 회장단 출범식 및 제1차 임원·이사 확대 간부회의를 축하하였다. 금번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규탄 및 시정 촉구, 9.11사태 규탄 및 부시 대통령 대응조치 지지 및 구호사업에 동포 동참 호소, 본국의 경제회복 및 권력형 부정부패 일소 및 정의 사회구현 촉구, 총연 자립재정 확립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지원 정책 수립 요청 등 5개항의 결의문(별첨)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 결의문

제1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는 2001년 9월 28-30일, 제1차 임원 확대 간부 회의를 캔터키 루이빌에서 개최하여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비롯하여, 총연의 제반 중요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1. 우리는 지난 9월 11일 항공기 납치 테러 단이 뉴욕, 워싱턴을 무차별 공격하여 한인을 포함 6천 6백여 인명 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인종을 초월하여 애도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헌혈을 비롯하여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부시 대통령의 대응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2.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역사의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규탄하며, 이의 시정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3. 우리는 본국의 경제의 어려움과 정치의 혼탁, 부정의 만연에 심히 우려하고, 하루속히 경제 회복과 정의 사회 구현을 촉구한다.
4. 우리는 각 지역의 한인 사회는 물론 주류 사회 일원으로 헌신할 것이며. 총연을 220만 미주 한인 사회의 구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총연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우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본국 정부의 미주 동포 지원이 장기적인 투자의 일환이란 인식의 정립으로 미래 지향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건의한다.